

너를 사랑

MARSA KOREA
MAGAZINE

2021 03
제19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모든 노력,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시작합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2021년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상구조사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수상구조사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을 부여받은 자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단체(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64시간) 후 해양경찰청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함



평가 과목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역할 및 혜택 ★★★★★

수상구조사는 해경특공대(경찰 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들에게 가산점 등의 혜택이 있음.



교육과정 안내

교육기간	연중 주말반 운영
접수방법	전화접수 (T.051-714-3122), 홈페이지 접수확인 후 교육비 납부
교육인원	과정별 각 40명(전화 및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교육장소	부산사직실내수영장(부산)
교육비	금500,000원 (교재비, 시설이용료 경비 포함, 숙식비 본인부담)
문의처	한국해양구조협회 T. 051-714-3122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https://imsn.kc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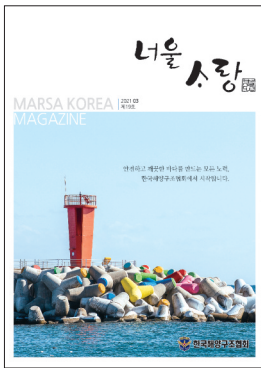
해양경찰청지정 교육기관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해양구조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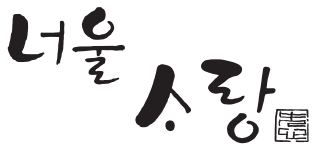
MARSА KOREA MAGAZINE

2021 03
제19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김성태
 발행일 2021년 03월 26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714-3695
 FAX. 051)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463-5898



표지 제자 「너를 사랑」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의미하는 '너울'
 과 봉사정신의 밑바탕인 '사랑'의 합성어
 로 해양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해양구조
 협회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담겨져 있다.

CONTENTS

	Special Theme	
04	인사말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장 김성태
06	축사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08	칼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_ 한국해양구조협회 고문 민흥기
	MARSА News	
10	본부 뉴스	1) 제19차 이사회 개최
11		2) 2021년 정기총회 개최
13		3) 이강덕 신임 사무총장 취임
14	지부·지역대 뉴스	1) 포항구조대장 이·취임식
15		2) 전북북부지부 시민해양봉사대, 코로나19 방역 봉사 실시
16		3) 경남서부지부, 이웃돕기 성금 2백만 원 기탁
17		4) 통영구조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안전교육
18		5) 충청남부지부, 해경 폐선 작품으로 재탄생 "해양안전 염원 담아"
19		6) 충청남부지부, 최우수 지역대 흥원구난대 선정
20		7) 구조·구난소식
	MARSА Story	
22	지부이야기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경기충남북부지부 이야기
26	안전을 부탁해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다! '이세미 강사의 도전 이야기'
28	환경을 부탁해	똑똑한 소비자들의 선택, 대세는 친환경!
	MARSА Info	
31	국내뉴스	1) 젊은 어업인에 어촌계원 자격 넘기면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급
32		2)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는 3-7월, 운항 주의하세요!
33		3) 올해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34		4) 봄철 어린 가자미를 지켜주세요!
	MARSА Notice	
36	협회교육안내	1) 2021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
37		2) 2021년 『인명구조요원/강사』 교육
38		3) 2021년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39		4) 2021년 『생존수영지도사』 교육
40	협회후원안내	

인사말

존경하는 대의원 그리고 바다 가족 여러분!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장 김 성 태



존경하는 대의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먼 길 마다않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꺼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그리고 바다가족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활동은 물론 통영 홍도 дай버 미출수자 수색구조 활동, 여수 초도 전복선박 승객 9명 전원 구조, 태풍예방과 피해복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 협회의 역할은 크게 빛났습니다.

그 결과 장흥구조대가 영예로운 대통령 단체 표창을, 김태곤 경북협회장과 서귀포지부 이승훈 국장이 대통령 개인표창, 배금란 경기충남북부 협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경남서부지부와 전남동부지부가 '바다 의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와 경의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해 민간경상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우리협회는 민간해양구조대원 4천여 명에 대한 단체피복의 지급과 단체상해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2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단체피복지급, 단체상해보험가입에 더하여 대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간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선봉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전념해 주신 우리협회 모든 구성원들의 희생 정신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이를 위해 물심양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님을 비롯한 해양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그리고 바다가족 여러분!

오늘 총회를 기점으로 우리 협회의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나치게 권위적인 느낌이 있는 총재라는 호칭을 회장으로 변경하여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하고, 이사장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여 보다 현장에 가깝고 실무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며,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광역지부를 신설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총회에서는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임원진 구성 등 중요한 안건과 현안들이 산재한 만큼 의견들을 충분히 개선해 주시고, 우리의 동반자인 해양경찰청에서도 우리협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수상자 여러분들께는 축하의 뜨거운 박수를 보내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신축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장 김 성 태

축사

존경하는 김성태 총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



해양경찰청장
김 홍 희

존경하는 김성태 총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

먼저 2021년 한국해양구조협회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해양경찰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1만 8천여명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진 민·관 해양구조 체계 확립이라는 청운을 안고 탄생한 해양구조협회가 어느덧 9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구조협회는 지난 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해양경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셨고 해양사고 예방·대응, 구조 활동을 통해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작년에는 해양에서의 국민보호에 큰 뜻이 있으신 김성태 총재님께서 새롭게 구조협회 총재로 취임하시어 구조협회가 민간해양구조대원 관리·운영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민간의 구조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조협회는 지난해 7월 완도지역을 끝으로 전국의 민간해양구조세력을 구조협회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에서의 민간구조 대표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구조협회가 조직의 체계화를 위한 광역지부 신설과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수행 등 역할과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의원 여러분!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최 일선 사고현장에서 헌신적인 구조 활동으로 해양경찰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해양경찰에서도 구조협회가 그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경찰은 민간구조자원의 구조역량 강화와 처우개선 확대, 구조협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간구조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민간해양구조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경찰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해양사고 예방, 구조지원 등 해양안전 확보에 공헌해 주신 총재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구조협회 창설부터 협회가 안착되기까지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으로 민관 협력 구조체계를 발전시킨 민홍기 이사장님께 사의를 표하며 떠나시는 이사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해양경찰청장 김 홍 희

칼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그동안 정말로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고문 민 홍 기

먼저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새봄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말, 한국해양구조협회 이사장으로서의 3번에 걸친 임기를 대과大過없이 마치고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평소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않는 한국해양구조협회의 구성원과 해양가족 모두에게 그동안 진정 고맙고 감사하였다는 말씀과 함께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협회의 주무부처인 해양경찰청의 역대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던 그동안의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이제 저는 지난 5년 동안 저와 우리협회에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가슴 깊이 간직한 채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난 5년을 잠시 회고回顧해보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전국 19개 지부 중 절반이 넘는 10개 지부의 와해된 『조직을 재건』하였고, 현실성이 결여된 총36개에 이르는 『정관 및 제 규정을 22개로 정비』하여 협회의 운영기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본부의 부산 이전』을 통해 해양의 메카Mecca인 부산을 기반으로 우리협회의 목적과 역할을 전국적으로 재조명하였으며, 『국유지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더 큰 확장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계간季刊소식지 『너울 너울』을 창간하여 협회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본부, 지부 및 지역대 간의 소식전달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그동안 이원적二元적으로 운영되던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일원화를 달성』함으로써 조직확장은 물론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력과 집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하였습니다.





중부청 민간구조세력 통합선포식



민관군 FTX훈련

또 한 가지 매우 고무적인 일은 해양경찰청의 『민간경상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민간해양구조세력에 대한 피복 지급, 단체상해보험 가입,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우리협회 주관 하에 시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6억 2천2백만원에 이어 금년도에는 100% 증액된 12억4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동 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향후 우리협회의 위상제고位相提高는 물론 조직관리 및 재정자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람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협회와 해양경찰 및 해양가족 모두에게 좀 더 만족스런 성과를 안겨드리지 못한 점, 특히 우리 모두가 염원해 마지않는 협회의 자립기반을 확실하게 담보擔保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약간의 아쉬움마저 남습니다.

이러한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는 이제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만 여러분들과 동고동락同苦同樂했던 지난 5년이란 세월은 제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소임所任이었기에 너무나 소중한였고, 또 진정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사람의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추억으로 간직한 채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해양경찰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호흡했던 지난 시절 혹여 좋지 못한 기억들일랑 새봄을 재촉하는 봄비에다 말끔히 씻어주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추억만을 가슴에 남겨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따뜻한 보살핌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며 작별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여러분! 그 동안 정말로 고맙습니다!!

신축년 춘삼월(辛丑年 春3月)

한국해양구조협회 고문 민 홍 기 드림

제19차 이사회 개최



◀ 이사회 회의

지난 2월 24일, 우리협회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19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는 재적 45명중 35명(참석 12, 위임 23)이 참석하였으며, 주요안건으로는 △2020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채택심의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지역대 설립의 건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정관 및 규정 개정의 건 △임원 선출 및 추천의 건 △총회부의 안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지역대 설립의 건은 울산지부(흰수리드론순찰대), 경기충남북부지부(특수구조대), 전북북부지부(스마트드론순찰대, 교육지원대, 시민봉사대, 군산구조대), 전남동부지부(봉사대), 충청북부지부(서산구조대) 등 5개의 지부에서 총 8개의 지역대를 신규 설립하였다.

정관 및 규정 개정의 건의 경우 임원 호칭을 ‘총재’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회장’으로 순화하고 이사장제

를 폐지, ‘사무총장’으로 변경하는 등 직제개편이 함께 시행되었다. 또한, 현행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보수를 지급하는 상근임원의 경우는 연임을 제한토록 하였다. 직제개편에 따라 민홍기 이사장은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이강덕 사무총장(前, 창원해양경찰서장)이 새로 취임하였다.

이어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관련된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 피복지급, 상해보험관리 등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고자 지방해경청 단위의 ‘광역지부’를 신설하였다. 이사회에서는 광역지부 신설과 관련된 지부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지부간의 정책공유를 위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대로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24일, 우리협회는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단체 기념사진

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민홍기 이사장, 이강덕 신임 사무총장, 협회장 및 대원들이 참석하였고 외부에서는 본청 맹주한 구조안전국장, 구조협력계장, 이천식 남해청 구조안전과장, 박형민 부산해양경찰서장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2020년도 결산(안) 및 감사보고서 승인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의 건 △임원 선출 및 승인의 건 등 4건의 의안을 상정하였고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 정관 주요 변경사항
- ① 임원호칭: 총재 → 회장, 부총재 → 부회장
이사장 → 사무총장
 - ② 임기연장: 기존 2년 → 3년
 - ③ 지방청단위 ‘광역지부’ 신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축사(맹주한 구조안전국장 대독)를 통해 “협회는 지난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해양경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셨고 해양사고 예방·대응·구조활동을 통해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다하여 왔다.”며 “최 일선 사고현장에서 헌신적인 구조활동으로 해양경찰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는 협회가 그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활동은 물론 통영 홍도 дай버 미출수자 수색구조활동, 여수 초도 전복선박 승객 9명 전원구조, 태풍 예방과 피해복구 등 우리협회의 역할은 크게 빛났다.”며 “그간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선봉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전념해 준 모든 구성원들의 희생정신에

MARSA NEWS | 본부 뉴스 |

박수를 보내 드리며 이를 위해 물심양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2016년 3월에 취임하여 5년간 이사장직을 역임한 민홍기 이사장이 퇴임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홍기 이사장은 취임 후 현실성이 결여된 총 36개에 이르는 정관 및 제 규정을 22개로 정비하여 협회의 운영기틀을 재정립하였으며, 협회 소식지 너울사랑 창간,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던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일원화, 해양경찰청의 민간경상보조사업 선정을 통한 예산 확보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며 협회 도약에 큰 힘을 발휘하였다.

민홍기 이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5년이란 세월은 제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소임이었기에 너무나 소중하였고, 또 진정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며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해양경찰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함께 호흡했던 지난 시절 혹여 좋지 못한 기억 들일랑 새봄을 재촉하는 봄비에다 말끔히 씻어주시고, 즐겁고 아름다웠던 추억만을 가슴에 남겨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해양봉사활동에 모범이 되어 활동에 앞장서준 대원들에게 표창 및 공로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 포상수여자 명단

• 감사장(해양경찰청장)

이재열(포항구조대), 김태균(경남서부특수구조대), 전승운(경남동부특수구조대), 강영(부산지부 여성봉사대), 신상운(경기충남북부지부 궁평지대장)

• 공로패(총재)

민홍기 이사장, 조동길 부총재,故장성호 부총재, 박석영 이사, 서일민 강원북부협회장, 정재완 포항구조대장, 김채학 울산남구조대장, 최주평 아라봉사대장, 조창국 통영구조대장, 김용환 고흥구조대장, 임강혁 장항구난대장, 한대희 동부산구조대장

• 단체표창(총재)

경남동부지부(최우수지부), 부산남항구조대(최우수지역대), 스마트드론순찰대(우수지역대), 전북남부특수구조대(우수지역대)

• 개인표창(총재)

권영식(울진구조대), 박창근(울주구조대), 이판규(마산구조대), 오희범(경남서부특수구조대), 윤가령(통영구조대), 박재영(진주사천구조대), 송민호(전남동부지부), 김동영(전북남부지부), 김석(전북북부 시민해양봉사대), 전형배(인천구조대)



▲ 맹주한 구조안전국장에게 해양경찰청장 공로패를 전달받은 민홍기 이사장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공로패



▲ 단체표창



▲ 개인표창



▲ 지역대장 임명장

이강덕 신임 사무총장 취임



▲ 이강덕 사무총장

우리협회는 직제개편에 따라 이사장제를 폐지하고 행정적 업무를 총괄할 사무총장 직제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이강덕 신임 사무총장이 지난 3월 1일 새롭게 취임하였으며 앞으로 협회의 경영, 교육, 사업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강덕 신임 사무총장은 1989년 해양경찰에 입직하

여 형사계장, 인사팀장, 상황담당관, 창원해양경찰서장 등 30년간 해양경찰로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해양전문가이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막중한 자리를 맡게되어 책임감이 크다.”며 “각 지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는 등 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항구조대장 이·취임식

지난 2월 21일, 우리협회 포항구조대는 우목리 포항구조대 사무실에서 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야외에서 진행되었으며 김태곤 경북지부협회장, 경북지부 소속 대장 및 대원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2018년부터 3년간 포항구조대장을 맡아온 정재완 대장은 2019년 12월에 발생했던 독도 헬기사고에 민간잠수사로 한 달간 수색작업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사고, 레저활동 인명사고 등 포항에서 일어난 굵직한 해양사고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눈부신 발자취를 남겼다.

새로 취임하는 이복만 대장 역시 포항구조대 부대장으로 활동해오며 지난해 도고해수욕장 10대 물놀이 사고 현장에서 발 빠른 대처로 익수자를 구조하였으며 포항에서 일어나는 해양사고에 개인 선박을 동원하여 구조 및 수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우목리에 새로 터를 마련한 포항구조대 사무실 개소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사무실은 장비 보관은 물론, 대원들의 교육 및 훈련, 해양사고 발생 시 기동력 확보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단체기념사진



▲ 이복만 신임대장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 포항구조대 사무실 개소식



전북북부지부 시민해양봉사대 코로나19 방역 봉사 실시

지난 2월 21일, 전북북부지부 시민해양봉사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다중시설 중심으로 방역·소독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 시민해양봉사대원들이 지하철역사 내, 공중화장실 중심으로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

군산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방역하였으며, 방역에 필요한 물품은 군산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지원받았다.

앞서 지난 1월 17일에도 시민해양봉사대는 군산 역전종합시장 및 신영시장 일대에 방역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시민해양봉사대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지역사회 내 방역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서부지부 이웃돕기 성금 2백만 원 기탁



◀ (왼쪽부터)
김태균 경남서부특수구조대장
강석주 통영시장
김태정 경남서부지부 협회장이
성금기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경남서부지부는 통영시에 설 명절맞이 이웃돕기 성금 2백만 원을 '살고싶은 통영 행복펀드'에 기탁하였다.

경남서부지부는 지난해 통영 다이버 미출수 사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을 인정받기도 했으며 해양사고 수색구조활동 뿐만아니라, 매년 명절과 연말 이웃사랑 성금기탁, 김장김치 후원,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김태정 협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해 희망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하였다.

기탁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통영시 지역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통영구조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안전교육

지난 2월 27일, 경남서부지부 통영구조대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엄마와아기센터’ 입소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 심폐소생술교육 중인 통영구조대

통영구조대는 매년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모금활동을 통한 생필품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통영구조대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 이물 폐쇄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과 성인뿐만 아니라 영·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서 화재사고가 빈번한 만큼, 화재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화재 대응 매뉴얼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함께 교육하였다.



충청남부지부, 해경 폐선 작품으로 재탄생 “해양안전 염원 담아”



충청남부지부에서 제작한 해양인명구조선 모형작품

‘보령시 성주산로’ 보령해양경찰서 앞 교차로에 해양인명구조선이 파도를 헤치며 가로지를 듯 날렵한 자세로 서있다.

지난 12월, 충청남부지부는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안전의식 고취라는 공익목적으로 서완봉 협회장을 비롯한 권혁영 고문, 김영호 이사 등 임원진들이 직접 사비를 모아 전국에서 최초로 해양인명구조선 모형작품을 만들었다.

보령 시내 한가운데 있는 이색적인 이 작품은 장항파출소에서 10년을 사용하고 수명이 다한 3톤급 폐선 보령-03정을 재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엔진 등을 모두 제거해 배 내부가 텅 빈 형태로 무게를 줄였으며 밑은 석재 3.5m×1.5m를 고정시켜 구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서완봉 협회장은 이 작품을 제작한 의미를 두고 “폐선을 활용해 해양경찰과 함께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하였다.



충청남부지부 최우수 지역대 흥원구난대 선정

- 200만원 상금 전달 -



◀ 상금 전달식

충청남부지부는 2020년도 추진사업 성과에 대하여 각 지역대의 구조구난 및 환경정화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흥원구난대를 최우수 지역대로 선정하였다.

서원봉 협회장은 지난 3월 18일, 흥원구난대 사무실을 방문하여 남기훈 흥원구난대장에게 200만원의 상금을 전달하였다. 금번 상금은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서원봉 협회장이 직접 사비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원구난대는 표류어선 및 보트 구난활동을 비롯해 환경정화활동, 춘장대 해수욕장 안전관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민간순찰단 조직 등 보령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앞장섰으며 민·관·군 합동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대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소홀함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에 서원봉 협회장은 “흥원구난대는 충청남부지부의 위상과 회원들의 자긍심을 드높여 타지역대의 롤모델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금의 봉사정신을 잊지않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지역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구조 · 구난 소식

| 장흥구조대, 장재도 해상 좌초 어선 2척 구조

장흥구조대는 지난 1월 25일 오전 0시 30분께 장흥군 회진면 장재도 남동쪽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선박을 구조하였다.



▲ 사고현장 수습 중인 완도해경과 장흥구조대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톤급 양식장관리선 A호는 전날 11시 40분께 여수 앞바다 해삼 양식장에서 불법 해삼을 채취하다 양식장관리선 B호에 발각,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다. A호는 발각되자마자 여수 앞바다에서 완도까지 빠르게 도주하였으며 이를 B호가 쫓아가는 과정에서 두 척 모두 장재도 남동쪽 인근 해상 저수면에 좌초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현장에서 완도해경은 승선원 구조 후 선박안전점검, 해양오염 여부 파악 등을 실시하였으며 장흥구조대는 좌초된 선박 양쪽으로 부이를 띄우며 배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도록 추가 피해를 막는 등 신속하게 사고현장을 수습하였다.

| 전북북부지부, 십이동파도서 실종된 선원 수색작업 지원

지난 1월 30일, 십이동파도 남서쪽 9.6m 해상에서 2,604t급 화물운반용 바지선이 전복되어 선원A씨(69)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원A씨는 전날 294t급 예인선에 의지해 전남 광양항에서 충남 당진항으로 이동하던 화물 바지선이 갑자기 뒤집히는 바람에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당시 인근에서 드론순찰을 진행 중이었던 전북북부지부 스마트드론순찰대 신철원 대장과 8명의 대원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되었다. 스마트드론순찰대는 수중 드론을 포함한 10대의 드론을 이용하여 구조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경계지역과 사각지대를 수색하며 반경을 넓혀갔다. 군산해경과 해군, 민간어선 등 인원 및 장비를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된 선원 A씨를 찾지 못하였



▲ 드론을 이용해 실종자수색작업에 나서는 스마트드론순찰대



다. 군산해경은 실종자가 발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예·부선 사고 예방을 위한 ‘운항 관리 경보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남서부지부(특수구조대, 진주사천구조대, 거제구조대), 침몰 어선 실종자 수색작업



▲ 사고현장

1월 23일, 오후 3시 45분께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남동쪽 1.1km 해상에서 339t급 대형선망어선인 127 대양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침몰한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9명, 인도네시아 선원 1명 등 총 10명이 탑승했고 이중 선원 김모(40)씨, 기관장 오모(68)씨, 갑판원 김모(55)씨가 실종되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통영해양경찰서로부터 수색 지원요청을 받은 경남서부지부는 특수구조대 11명, 거제구조대 7명, 진주사천구조대 5명 등 23명의 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수중수색작업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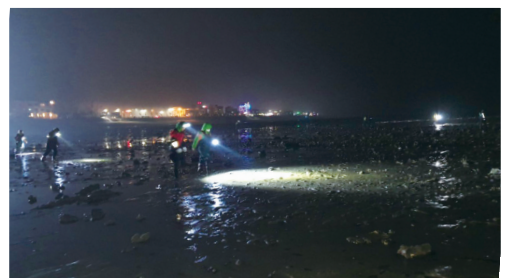
수색 당시 사고해역에 내려진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인해 수색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부터 경남서부지부는 남부면과 해금강 수변 주변으로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7일간 추가 수색작업에 동참하였다. 실종자 3명 중 1명인 선장 김모(67)씨는 지난 2월 5일, 수심 69m 지점 배 안에서 민간잠수사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 경기충남북부지부, 제부도 앞바다 실종자 수색

지난 3월 14일, 오후 3시 40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안가에서 개불잡이를 하러간 남성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양경찰서는 우리협회 경기충남북부지부에 지원요청을 하였다.

해경은 선후배 사이인 A씨(53), B(47)씨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함께 갯벌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사람의 실종 사실은 지난 14일 마지막으로 들린 마트 주인이 밀물 시간인데도 이들이 육지로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후 3시 30분쯤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경기충남북부지부에서는 17명의 대원과 민간해양구조선 등을 동원하여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바다에 짙은 안개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된 남성 2명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15일 오전 11시 45분쯤 인근 갯벌에서 모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 평택해경과 야간수색작업 중인 경기충남북부지부 대원들

지부이야기 _경기충남북부지부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경기충남북부지부 이야기

| 인터뷰 _ 경기충남북부지부 배금란 협회장 |

지난 2019년 6월 26일, 평택해양경찰서 대강당에서는 민간 구조세력 통합선포식이 개최되었다. 경기·충남지역 일대로 흩어져 있던 민간해양구조대가 하나로 통합되기까지 선봉에서 진두지휘 한 건 협회 최초의 여성리더인 배금란 협회장이다. 민간구조세력 통합선포식과 함께 배금란 협회장은 공식적으로 경기충남북부지부의 협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취임 후 약 2년이 지난 지금, 크고 작은 해양사고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록하며 눈부신 조직의 발전을 이뤄오고 있는 경기충남북부지부를 들여다보았다.



리더의 힘을 보여준 조직 통합

경기충남북부지부는 현재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충남 당진, 대산을 중심으로 협회장 1명, 부협회장 2명, 자문의원 3명, 감사 1명과 각 파출소와 항 포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10개의 구조대와 1개의 봉사대로 구성되어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대강당에서 민간구조세력을 하나로 통합했을 당시 총 380여명의 대원들과 함께했던 지부는 2년이 지난 현재 70명의 대원이 추가 입회하면서 조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경기충남북부지부, 민간구조세력 통합선포식에서 배금란 협회장이 지부 깃발을 흔들고 있다.

각 구조대들은 협회로 통합되기 이전, 2013년부터 블루가드봉사대, 자율방재단, 민간자율봉사대 등 5개 단체가 평택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양봉사활동을 해왔다. 하나로 통합되기까지 두 차례의 큰 진통을 겪었고 고성 이 오갈 만큼 적지 않은 마찰과 대립이 있었다.

하지만 배금란 협회장은 수차례 간담회와 운영진들과의 회의를 통해 마침내 대원들을 설득하였고 협회로 통합을 이뤄냈다.

“구조대들이 크고 작은 구조활동에 동참하면서 제도적인 문제로 최소한의 복지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구조협회로 통합되면 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복장 및 수당 지원 등 오랜 시간 현장에서 느꼈던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배금란 협회장은 협회 통합 전 민간해양구조대로 활동할 당시 전체 구조대원들의 투표를 통해 12명의 후보 중 최다득표로 구조대 대표로 선출되어 활약해왔다. 현장에서는 냉철한 리더의 면모를 보이다가도 평소에는 세심하고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대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에 강한 리더로 대원들과 함께 성장해 오고있다.

현장에 강한 경기충남북부지부



▲ 석문방조제 실종자 수색작업에서 로프를 이용해 실종자를 찾고 있는 경기충남북부지부 대원들

경기충남북부지부는 평택해양경찰서를 주축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상황실 혹은 파출소로부터 즉시 지원요청이 온다. 지부는 소통창구인 밴드(SNS) 및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사고현장을 공유하고 지원 가능한 대원들을 동원한다. 대원들은 잠수 기량뿐만 아니라 바다 지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현장에서 능숙한 대처가 가능하다.

다양한 해양사고에 동참했지만 경기충남북부지부 대원들의 기량이 뛰어나게 발휘되었던 사고현장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석문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던 40대 남성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다. 평택해경은 경비정 4척과 연안구조정 3척, 헬기 1척을 동원했고 지부에서는 민간구조선과 잠수 가능한 대원들이 동원되어 수색작업을 실시했지만 4일간 실종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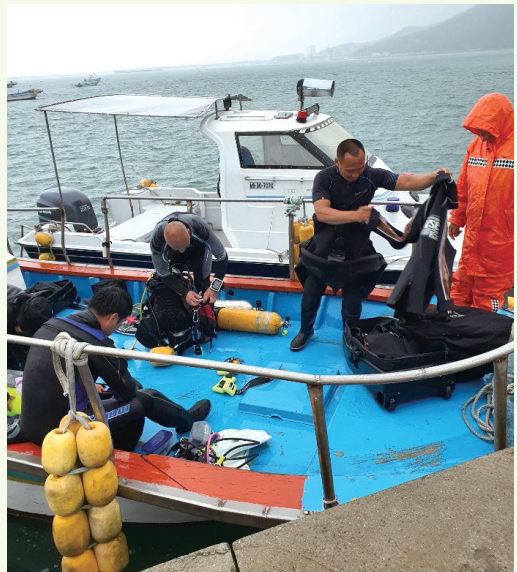


그때, 대원들이 낸 아이디어가 바닷속에서 로프를 길게 연결하여 일렬로 줄을 이뤄 수색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서해바다 특성상 갯벌 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자칫하다간 수색하는 사람들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수색작업을 하는 대원들의 안전도 지키고 로프를 통해 수색 범위도 넓혀나갈 수 있었고 마침내 수색 5일째 되는 날, 대원들이 연결한 로프로 인해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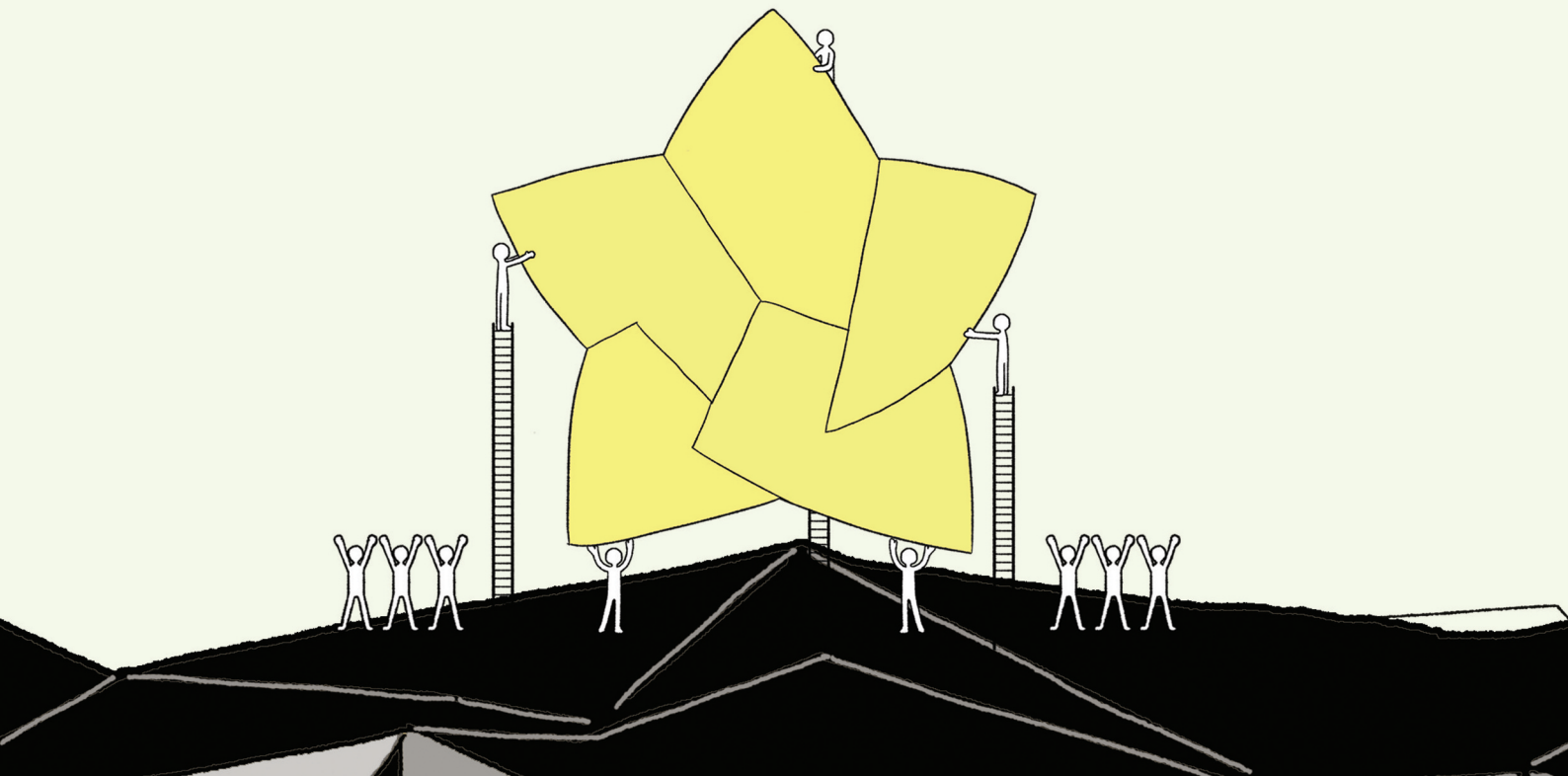
“4박 5일 밤낮으로 대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시신을 유가족 품에 안겨드렸을 때 유가족들이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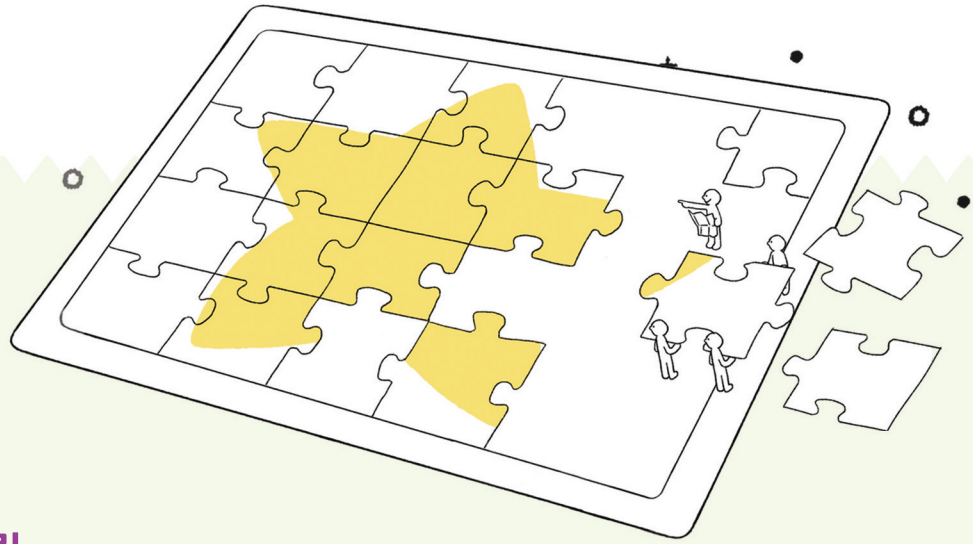
경기충남북부지부는 직접 구조요청을 하는 고립자의 경우, 대략적인 질문 몇 가지로 어떤 상황인지, 주변 어디쯤 안전지대가 있는지 즉각적으로 현장대응이 가능하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가끔 고립자들이 아비규환이 된 목소리로 구조요청을 한다. 바로 옆에 노란 등대가 있으니 그곳에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건 없다고 빨리 살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럴 땐 우리가 이곳에 오랜 시간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고 위치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안다고 안심시킨 후 주변을 보게 하면 그제야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된 경기충남북부지부 대원들





조직운영체계 확립

경기충남북부지부는 지난해 잠수경력을 보유하고 현장대응이 즉각적으로 가능한 대원들을 구성하여 특수구조대를 발대하였다. 다른 지부처럼 지역 해경과 협업하여 주기적으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대원들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현재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봉사단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지역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위탁사업에도 지원할 예정이며 구조대원들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도 힘쓰고 있다.

“협회장을 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협회 관련 업무로 만나 대원들과 운영위원들에게 의논하려고 한다. 때에 따라 고집을 부려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지만 운영위원들이 반대하는 일은 저도 할 수는 없다. 그만큼 다수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최종적인 목표는 지부가 할 수 있는 사업, 행사, 그리고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 마련 등 행정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여 차기 어떤 후임자가 일을 해도 안정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게 지금 저의 목표이다.”

지부는 가장 바쁜 조업 시기를 제외하고 수시로 지역을 순회하며 대장들과 소통한다. 2개월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회의를 통해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지부운영 밴드 및 메신저를 통해 항시 우선으로 소식을 공유한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구조활동 및 환경정화 실적 역시 빠르게 두각을 보이며 지부의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 평택해경과 안전관리 회의 중인 경기충남북부지부



안전을 부탁 海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다!

‘이세미 강사의 도전 이야기’

“강사님 너무 빠세요~”

이세미 강사가 교육을 시작하면 교육생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다. 기본만 하고 싶은 학생들과 좀 더 욕심을 내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이세미 강사 사이에는 언제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한 가지 도전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으로 유명한 이 강사는 교육과정에 있어 '그냥'은 없다. 덕분에 협회에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며 학생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조금은 독특한 이력을 지닌 이 강사의 꿈과 열정의 도전기를 들여다보았다.

| 인터뷰 _ 한국해양구조협회 이세미 강사 |



▲ 웨이크보드를 타고 있는 이세미 강사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

2016년도 지인의 소개로 협회의 인명구조요원 교육을 권유받은 이세미 강사는 도전에 앞서 수영 실력에 부족함을 느껴 기초수영부터 배우기 시작하였다. 호흡, 발차기부터 배우며 몇 개월 만에 수영을 마스터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에 도전하게 하면서 이후 인명구조강사, 재난안전지도사, 인명구조평가관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오며 본격적으로 강사의 길로 들어선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배웠던 수영을 기회로 지난 2019년 ‘코리아마스터즈 수영대회’에 출전하여 ‘평영’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이번 수상은 한번 도전하면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그녀의 근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 웨이크보드대회 수상 당시 이세미 강사

최고가 되기 위한 도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자연식물학을 전공했던 이 강사는 졸업 후 패션디자인을 다시 공부하며 의류 관련 일에 종사하게 된다. 업계에서도 인정받아온 그녀가 우연히 취미활동으로 웨이크보드를 접하게 되면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운동의 매력에 빠지게 된 이 강사는 취미에 그치지 않고 결국 프로선수로 전향하며 새로운 도전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처음 시작할 때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당연하지만 승부욕 때문에 더 잘하고 싶었다. 일을 그만두고 프로선수가 되기까지 정

말 많이 힘들었다. 금전적인 지원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고의 자리까지 가보는 것이 목표였다.”

결국, 불굴의 의지로 꾸준히 노력했던 이 강사는 2002년 프로 데뷔 이후 5년간 14개의 전국 웨이크보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여성으로서 괄목할 만한 기록을 보여준 그녀의 도전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본인이 목표하는 바를 끈기로 이루어낸 이 강사의 이와 같은 노력은 교육현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교육도 프로선수처럼!

프로선수시절을 경험해 온 이세미 강사는 교육에 있어서도 그 성향과 기질이 남아 있어 좀 더 강도 높게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여자 강사라서 느슨하게 하지 않을까 오해(?)를 한 학생들은 수업 시작과 동시에 본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교육에 임했는지를 금세 깨닫게 된다.



▲ 인명구조요원 교육중인 이세미 강사

“처음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면 기량이 확실히 늘게 된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도중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해야되나 스스로 갈등도 많이 하고 그 중간을 찾으려고 노력도 해왔다. 하지만 힘들게 시작한 학생들이 최종 합격하고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올 때마다 내 방식이 틀리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때 강사로서 보람을 가장 많이 느낀다.”

끝나지 않는 목표설정

이세미 강사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현재 그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조정면허 2급, open water diver, 인명구조강사, 재난안전지도사 1급, 생존수영강사 2급, 인명구조평가관 등이 있다. 또한, 수영대회에서 1등 할 만큼 수영 실력이 뛰어난 이 강사는 지금도 매일 수영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교육자료만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 전문 의료진은 아니지만 인명구조와 관련된 교육인 만큼 최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크다. 그래서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다. 또한, 체력유지를 위해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신설된 수상구조사 교육과정을 수료했지만 발목부상으로 잠시 보류중에 있다. 결과가 좋으면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강사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세미 강사는 현재 전남대학교 수산해양산업관광레저융합학과에 편입하여 다시 학사과정을 밟고 있다. 그곳에서 해양학 및 실습, 레저실무를 배우는 등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위해서는 학문적 지식습득이 중요하다고 또한번 느끼며 편입을 결심하였다. 많은 성과를 이루으며 강사로서는 이미 충분한 자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세미 강사의 가슴 뛰는 다음 행보도 기대해 본다.

환경을 부탁 海

똑똑한 소비자들의 선택 대세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비량 증가, 어디로 가나?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포장 주문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배출된 플라스틱은 전년 동기대비 14.6% 늘었다. 비닐 역시 11% 증가하였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가에서 수거한 폐기물만 종합한 수치로, 민간업체들의 수치가 더해지면 증가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5일, 발표된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60가구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1만 6,626개이고, 이중 식품 포장재가 1만 1,888개로 가장 많았다. 가정 내 플라스틱 쓰레기 중 7개(71.5%)가 식품 포장과 관련된 것이다. 배달용기 플라스틱 7.5%까지 포함하면 식품 관련 플라스틱은 79%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플라스틱 처리 과정 중 실제 재활용률은 전체 수거량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80%는 매립과 소각인데, 매립과정에서 침출수나 매립가스가 흘러나와 땅과 물을 오염시키기도 하며 PVC플라스틱을 소각하는 경우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대기를 타고 방출되어 근처 땅, 물, 동식물에 전파하게 된다. 결국, 최후의 먹이사슬인 인간에게 거슬러 돌아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가치 소비에 눈을 뜬 소비자들,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



좌) 롯데칠성 아이시스 에코
우) 풀무원 친환경 포장용기 (Bio-PET)

먹이사슬의 최후인 우리는 과연 이 현상을 그저 지켜보며 소비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코로나 19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와 함께 부채감을 느끼는 소비자도 증가하였다. 소비자들은 환경문제에 촉각을 세우며 좀 더 바빠더라도

친환경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기업들 역시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며 친환경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약 30만톤의 페펫병이 나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2만톤이 넘는 재활용 페펫병을 수입해오고 있다. 이유는 우리나라 페펫병 라벨(스티커)이 제거되기 어려워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부터 라벨 없는 생수 ‘아이시스 에코’를 판매하고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역시 자사 매장에서 판매하는 아이스컵에 로고를 모두 없애기로 밝혔다. 재활용을 하려면 컵 표면에 인쇄된 브랜드나 기업 로고 등을 지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 이번 로고 삭제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풀무원의 경우 사탕수수 추출물로 만든 바이오 페펫 용기를 개발해 포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CJ제일제당은 ‘밀로’ 만들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 포장지를 개발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였다.

예전에는 친환경 콘텐츠 생산이나 캠페인이 환경단체나 NGO들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소비재 위주인 유통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기업들 역시 변화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친환경 인증 마크를 찾아라!

친환경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다 보니 먹거리,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 곳곳에 ‘친환경’이라는 문구와 마크가 붙어 있다. 하지만 많은 제품들 중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가짜 마크들이 많기때문에 올바른 친환경 인증마크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표지제와 환경부 인증 통합마크 | 생산부터 폐기까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를 표시하는 제도.

환경부에서는 ‘환경표지 제도’를 통해 생산, 소비, 폐기에 걸친 전 과정에서 다른제품들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북유럽, 미국, 캐나다 등 40여 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친환경 정책 중 하나이다.

환경을 부탁해

환경 성적 표지 제도 | 제품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이 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제품들은 자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공개한 제품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 신뢰성이 매우 높다.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자원 발자국 등 총 7가지 항목을 나누어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생태 독성, 인체 독성, 생물 다양성 영향 등의 영향 범주도 추가될 예정이다.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양을 표시하는 제도.

7가지 항목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이 바로 ‘탄소발자국’인증 마크이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양을 라벨 형태로 제품에 표시해 저탄소 제품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 1단계 탄소발자국 인증마크가 부착되었다면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산정한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 저탄소 제품인증 마크가 부착된 경우는 평균 탄소 배출량이 하이며, 저탄소 기술 적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4.24%까지 감축한 제품이기 때문에 녹색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마크다.

GR(Good Recycled)마크 | 국립기술품질원의 자원재활용 기술개발센터에서 우수 재활용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규격

국내에서 생산된 재활용 제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만 GR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량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녹색 소비를 할 수 있다.



미래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사회 문제 인식에 따라 환경문제와 관련된 소비자 인식도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하와이 주 사이의 태평양에는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만들어져 있다.

유럽 플라스틱 및 고무기계 협회(이하 EUROMAP)의 '세계 63개국의 포장용 플라스틱 생산량 및 소비량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61.97kg으로 벨기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과 중국이 순위에 올랐다. 2015년 2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의 순위는 2020년까지 이어오며 불명예를 안고 있다.

플라스틱은 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썩어 없어지는데 5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처럼 지구의 환경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건강한 먹거리를 미래에 누릴 수 있을까. 어떤 나라들은 이미 기후 난민 문제를 연구하며 출입국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기후 난민이 안 될 거라고 감히 보장할 수 있을까. 질문의 끝에는 많은 물음표가 붙을 수 밖에 없다. 소비의 작은 변화는 곧 기업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노력은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변화의 시작은 지금뿐이며 사실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국내 뉴스

젊은 어업인에 어촌계원 자격 넘기면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급

해수부,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고시 제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8일(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5.26)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를 시행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고시 제정을 통해 경영이양직불제 지급 대상자에게 주는 지급액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200만 원이 넘고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연간 결산소득의 60%를, 2,400만 원이 넘으면 연간 1,440만 원을 정액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또한, ▲소속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서 경영을 이양 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젊은 어업인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하여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021년 경영이양 직불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60일) 및 직불금 지급을 위한 약정체결(30일) 등 일정을 감안하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경영이양직불제가 고령의 어업인과 젊은 어업인이 조화롭게 상생하며 잘 사는 어촌을 만드는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촌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국내 뉴스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는 3-7월, 운항 주의하세요!

3월~7월 농무기에 발생하는 선박사고, 연간 해양 사고 40.2% 차지

해양경찰청은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3월부터 7월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농무기인 3월에서 7월까지의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봄을 맞아 바다를 찾는 레저선박이나 행락객도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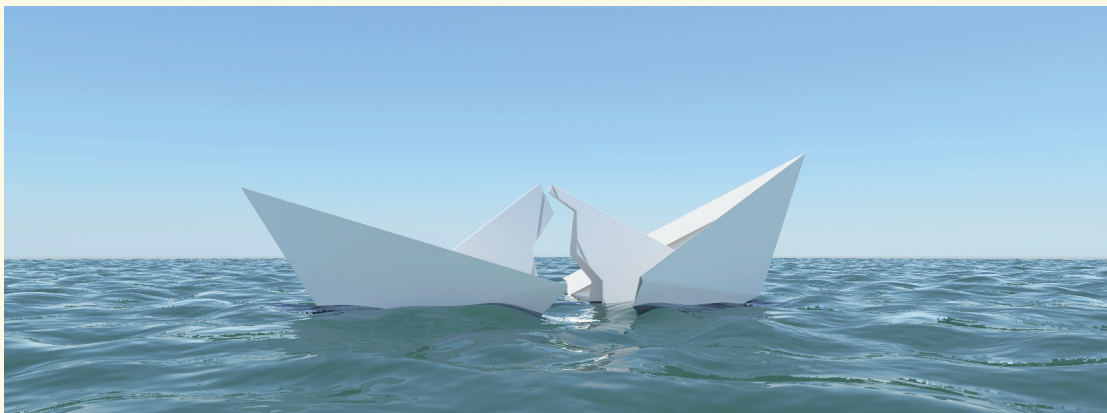
최근 5년간 해양 선박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7,031척 중 농무기에 6,843척(40.2%)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시야 확보가 안 될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저시정(1km 이하) 상태에서 419척(2.5%)의 선박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선박 종류별 분포로 보면, 어선 217척(51.8%), 레저선박 93척(22.2%), 낚시어선 41척(9.8%) 등이다.

특히, 레저선박과 낚시어선 사고는 서해중부해역에서 53%(71척)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 '2021년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농무기에 대비해 해역별 맞춤형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에 따라 경비함정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등 '사고다발해역'을 중점 관리한다. '나홀로' 운항 등 사고에 취약한 레저선박과 여객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해양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개 발생 현황 등 해양 안전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수난구호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관·군 협력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짙은 안개가 낀 바다에서는 무리한 선박 운항을 자제하고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 운항자의 안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고 취약 해역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해양경찰청]



올해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친환경수산물 직접지불제 3월부터 시행, 4월까지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3월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를 시행하며, 4월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무항생제수산물 등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256억 원의 예산(국비 100%)이 편성되었다. 이 직불금은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인증 직불금)과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뉜다.

먼저 ‘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지원**된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 ※ 넙치,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
- ※ 품목별, 인증 단계별로 1ha당 530,000~272,924,000원을 지원

구분	준수사항
수산공익직불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관계법령 준수 •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친환경수산물 인증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 배합사료 사용(생사료 금지) • 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 금지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1어가당 최대 2억 9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원~12,390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월부터 매월 지급하며, 올해는 1월 배합사료 사용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3월 15일(월)까지(지역에 따라 지원기간은 일부 변경), 인증 직불금은 4월 30일(금)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직불금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들은 가까운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직불제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5월 26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출처: 해양수산부]

국내 뉴스

봄철 어린 가자미를 지켜주세요!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17cm) 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린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가자미 4종(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의 금지체장(17cm 이하)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지체장(체중)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크기(무게)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강화된 10개 어종을 포함하여 총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는 봄철 인기어종인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어린 가자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자미의 금지체장 신설·강화는 어린 가자미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사한 어종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자미 4종에 대한 금지체장을 17cm 이하로 통일하였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금지체장이 신설되었으며, 문치가자미는 15cm에서, 참가자미는 12cm에서 각각 17cm로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가자미 4종 모두 17cm보다 작은 개체를 포획·채취할 수 없으며 유통도 금지된다.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은 17cm 이하로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cm 이하로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표 흰 살 생선인 가자미*는 종류별로 사는 곳이 다른데, 기름가자미와 참가자미는 주로 동해안, 용가자미는 동해안과 서해안, 문치가자미는 전 연안에 서식한다.

※ 가자미 어획량 추이(톤): (‘10) 20,107 → (‘14) 18,804 → (‘15) 17,753 → (‘16) 15,044 → (‘17) 14,082 → (‘18) 15,301 → (‘19) 18,171

가자미는 종류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지느러미가 검고 ‘물가자미, 미주구리’ 등의 방언으로 불리는 기름가자미는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밀반찬용 생선이다. 포항가자미, 어구가자미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용가자미는 눈이 머리 꼭대기에 붙어 특 볼거진 듯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구이용으로 소비된다. 참가자미는 눈이 없는 쪽으로 뒤집어 보면 등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를 따라 꼬리자루까지 노란 띠가 있어 ‘노랑가자미’라고도 불린다. 문치가자미는 입이 작고 눈이 튀어나와 있으며 흔히 ‘도다리’라는 방언으로 불리는 대표 어종이다. 참가자미와 문치가자미도 조림, 국, 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가자미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식문화가 있다. 바로 ‘뼈째회’와 어린가자미 통째 건어물이다. 특히 봄철에는 어린 가자미가 ‘도다리 뼈째회’로 불리며 인기를 끌어 15cm 이하의 어린 가자미가 집중 소비되어 왔다. 또한 기름가자미 등 일부 가자미류는 작은 크기가 통째로 건조되어 밑반찬이나 간식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해양수산부는 가자미 4종을 포함하여 올해 금지체장(체중)이 신설·강화된 어종들에 대해 자원 동향과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캠페인인 ‘치어럽*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어린물고기(치어)를 키우자(UP)와 사랑하자(LOVE)라는 중의적 표현의 캠페인명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린 가자미가 무사히 자라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모두 금지체장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물고기가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도록 유통업계와 국민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협회교육안내

2021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수상구조기술향상과정」의 일환으로

2021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개요

- 과 정 명 :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 주 관 : 한국해양구조협회
- 교육대상 : 수영 100m 이상 가능한자, 해경특공대(경찰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
- 교육 및 접수기간 : 연중 주말반 운영(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 교육인원 : 과정별 각 40명(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강의실 및 수영장
- 교 육 비 : 금500,000원(수협 1010-1020-6229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영장입장료 포함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장), 신분증

■ 주요사항

-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본 교육기관에서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64시간만 진행됩니다. 시험일정 및 장소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교육수료 후 개인이 직접 해양경찰청에 신청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상구조사 교육(64시간) 미 이수 시 추가 보충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보충교육 일정은 교육상황에 따라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 교육시작일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수강취소를 원하시면 교육 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문 의 : T. 051-714-3122, F. 051-714-3095, E. kmrc119@hanmail.net
-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imsm.kcg.go.kr>

협회교육안내

2021년 『인명구조요원/강사』 교육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육성

| 2021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1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관할 지역 실내수영장
- 대 상 : 요원 -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강사 - 요원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40시간), 인명구조강사(60시간)
- 준비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육비 : 요원 22만원 / 강사 3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24시간) /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인명구조 교수법(20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자격명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2014-1485)
인명구조강사(2014-5724)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강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교육안내

2021년 『재난안전지도사』교육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1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1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재난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재난 3급 이수자
3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1급 30만원 / 2급 10만원 / 3급 5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재난안전의 의미(8시간)
 - 위급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8시간)
 - 재난안전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372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1년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1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1년 1월~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해양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1급 30만원, 2급 1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해양안전·생존 등 해양사고예방의 의미(8시간)
 - 선박화재, 충돌, 침수 등 위급 시 행동요령(8시간)
 - 해양안전·생존 등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281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교육안내

2021년 『생존수영지도사』 교육

해양사고 발생시 개인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생존수영 및 사고대처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 수행

| 2021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1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실내수영장 및 잠수풀장, 회의실, 강당
- 대 상 : 2급 - 만 16세 이상, 사전평가(자유형/평영 각50m, 잠영10m) 합격자
1급 - 2급 자격증 보유자 중 동 교육에 10시간 이상의 교육에 참여한 자
- 준 비 물 : 필기도구,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2급 20만원 / 1급 2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전날 까지 100% 환불 (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생존수영지도(12시간)
 - 응급처치지도(4시간)
 - 생존수영이해(8시간)
 - 교수법(8시간)

- 자격명
생존수영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생존수영지도사(2020-005567)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생존수영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후원안내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2) 특정목적사업 후원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3)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kmrc119@hanmail.net |





마린하우스 Marine House

**스포츠용품, 산업안전용품
수상안전용품, 선용품 등 토탈서비스**



스포츠 용품



물놀이 용품



해양안전용품



선용품



산업안전용품



합성나무데크용품



보건의료용품



소방안전용품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지해변길 96(동삼동)

T. (051)341-4949 M. 010-6439-1119 E. rcbusan1119@gmail.com

스킨 스쿠버 장비

각종 채집망 풀건 전국 도·소매

최대 **80%** OFF 
창고 **대**방출

#한정수량

#초특가전

#오프라인대방출



낚시보트 | 요트
파워보트 | 판매, A/S 등



스쿠버 장비세트



컴프레샤



주소 49126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지해변길 96
연락처 010-3586-1526
메일 scuba0909@naver.com